

단신

운영위원 회의 개최
충남도지부는 1월 31일 공주시 웅진동 충남통일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설 명절 현수막 게시
세종시지부는 1월 30일 세종시 주요 거리에 '온 가족이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의 설 명절 현수막을 걸었다.

사회복지 시설 위문
충북 보은군지회 청년회와 여성회는 1월 28일 수한면에 소재한 사회복지 시설 인우원을 찾아 위문 활동을 했다.

따뜻한 설명절 보내기
충남 아산시지회는 1월 26일 온양온천역 리비체에서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 행사를 열었다.

김정수 청년회장 취임
충북 청주시지회는 1월 10일 가경동 더케이인하우스에서 '제15대 김정수 청년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환경정화 캠페인
세종시지부 연동면분회는 1월 9일 연동면 황우산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동네행복지킴이 활동
충북 증평군지회 여성회는 1월 8일 지역 사회복지 시설에서 동네행복지킴이 활동을 했다.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
충북 보은군 지구촌재난구조단은 1월 8일 지역 주요 읍면 등산로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벌였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충북 충주시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은 1월 7일 산책면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가졌다.

대전-세종지

남북 산림협력 '한반도 숲 가꾸기' 현판식 개최

1인 1나무 심기, 가두캠페인 등 대국민 공감대 확산 나서

대전시지부(회장 박인국)는 1월 29일 중촌동 자유회관에서 박인국 회장을 비롯해 조병철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장과 산림청 관계자 및 지부인원, 5개 구지회 회장 등 조직간부와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산림협력 '한반도 숲 가꾸기' 사업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경과보고, 내빈 소개, 기념사, 축사, 현판 제막,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왼쪽 사진>

박인국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인 1나무 심기, 방북 나무 심기, 북한에 양묘장 조성 등을 통해 한반도 숲 가꾸기 사업에 동



참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인성 자유평화연구원 연구처장의 특강(주제:국리민복이 실현과 한반도 숲 가꾸기 사업)이 있었다. 세종시지부(회장 서순철)도 같

은 날 조치원을 세종자유회관에서 서순철 회장을 비롯해 최홍신 부회장 등 지부 운영위원과 분회장 및 조직간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숲 가꾸기' 세종추진단 현판식 행사를



펼쳤다. <오른쪽 사진> 이어 김인성 자유평화연구원 연구처장의 '한반도 숲 가꾸기' 사업 브리핑도 있었다.

제13대 장성준 청년협의회장 취임식 개최

김지철 교육감, 최대규 회장, 장기식 청년협의회장 등 200명

충남도지부

충남도지부(회장 최대규)는 1월 18일 아산시 온천동 온양제일호텔 크리스탈홀에서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유병훈 아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조철기·김영

권 도의회 의원 등 내빈과 최대규 회장 및 조직간부와 회원, 장기식 전국청년협의회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대 장성준 청년협의회장 취임

식'을 개최했다.

이면우 전 회장의 이임식도 겸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공로패 수여, 감사패 전달, 이임사, 취임선서 및 임명장 수여, 청년회기 전수, 취임사, 재임기념패, 격려사, 치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그 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또한 청년협의회 조직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

충북 청주시지회

충북 청주시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장 김신애)은 1월 26일 사창동 창신초등학교 일대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단원들은 학생들에게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지도했다.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신년회

충남 금산군지회

충남 금산군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장 최은경)은 1월 23일 금산을 금산군다목적군민회관에서 간부와 단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신년회'를 개최했다.

자동차 속도줄이기 캠페인

충남 당진시지회

충남 당진시지회(회장 김현기)는 1월 31일 읍내동 당진전통시장과 당진구터미널 일대에서 자동차 속도줄이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의 현수막을 들고 안전운전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두캠페인을 갖고 홍보물 1000장을 주민에게 배포했다.

대전지구전투 호국영웅비 현충시설 지정

대전시 서구 탄방동 보라매공원에 소재한 대전지구전투 호국영웅비가 1월 20일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심의결과 신규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대전시지부가 수탁관리하는 대전지구전투 호국영웅비는 1950년 7월 17~20일 대전지구전투에 참가해 용감히 싸우다 산화한 미군 참전용사(미 제24사단 등)의 넋을 기리고 그 희생과 업적을 알리기

위해 2016년 건립됐다. 이번 현충시설 지정으로 대전지구전투 호국영웅비는 지

역 청소년들과 시민이 즐겨 찾는 현장 체험의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